

커뮤니티웰빙 이론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자원(Resource) 영역, 자본(Capital) 요소, 하위지표의 관계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Concept Formation of the Community
Well-being Theory:
With focus on the Relationships of Resources Domains, Capital
Factors, and Subordinate Indices**

기영화 · 서인석 · 이승중
Youngwha Kee, Inseok Seo, Seungjong Lee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s to verify the theoretical model of community well-being presented by Kee, et al. (2014) focusing on resources and capital. Through the higher order factor analysis, the goodness of fit ranking in the superior scope, the goodness of fit ranking in the subordinate scope, and by extension, the goodness of fit ranking of the measurement indices were compared, and this researcher attempted to obtain the implications. This attempt can play the role of refining the theoretical frame since the model presented theoretically can differ from real world situ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me implications could be derived.

First, social resources showed the highest goodness of fit in the superior scope among the concepts of the community well-being theory. These results show that such things as mutual trust and network, cultural properties (local color) need to be shared. Second, in each of the superior three scopes, human capital (human resources), cultural capital (social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capital (natural resources) showed a high goodness of fit. It was higher in human capital than in economic capital, and this means that the past viewpoint that economic parts are important has changed considerably. Third, despite the fact that the indices applicable to the economic capital are the variables that have been used for a considerably long period of time, the measurement indices' goodness of fit was generally low.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economic factors are not magnified in the citizens' consciousness as much as the growth-oriented regional development was in the past.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13S1A3A2054622).

제1저자 : 기영화, 교신저자 : 이승중

주 제 어 : 커뮤니티웰빙, Kee 모형,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

Key words : Community Wellbeing, Kee's Model, Components of Community Wellbeing

I. 문제의 제기

커뮤니티웰빙은 어떤 요소로 구성될 수 있는가? 단지 개인의 삶과 관련된 건강, 행복감으로 구성되는 것인가? 아니면 커뮤니티웰빙을 가이드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은 제시될 수 없을까? 최근 연구들은(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3; 이승중·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커뮤니티웰빙의 개념과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국내외 많은 웰빙의 개념과 웰빙에 관련된 지역단위의 주요요소를 개념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정의를 시도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관점에 기초하여 실무에서 개인의 삶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기초한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웰빙은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어렵다. 개인을 설명하는 것과 집합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관점이 상충될 뿐만 아니라 각 관점 모두 이론적 체계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웰빙의 개념은 혼란과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Kee, et al.(2014)는 자원(Resource)의 관점과 자본(Capital)의 관점을 활용하여 6개영역으로 커뮤니티웰빙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를 3개의 자원(Resource)와 6개 자본(Capital)로 구분하였다. 3개의 자원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 사회적자원(Social Resource),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이다. 또한 이 세 가지 자원은 각기 2가지의 자본으로 구분하는데 인적자원은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으로, 사회적자원은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과 문화적자본(Cultural capital)으로, 자연자원은 인프라자본(Infra-structural capital)과 자연자본(Natural Resource)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상이한 개념과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차원적 접근(Multi-dimensional approach)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개념에는 개인(Individual), 가족(Family), 사회(Society)를 균형적으로 아우르고 있어 특정한 하나의 관점에 초점이 되어 논의가 이루어졌던 과거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대두되어 이슈화된 커뮤니티웰빙의 개념을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Kee, et al.(2014)의 커뮤니티웰빙 이론적 모형을 본 연구에서 검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즉, 다분과적인 커뮤니티웰빙의 비체계성 및 이론적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 시론적인 차원이나 이론적으로 제시한 Kee et al.(2014) 모형에 대해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Kee et al.(2014)가 제시한 6가지의 영역은 각기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커뮤니티 및 지역의 특성과 차이에 따라 각 영역은 다른 가중치가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이론모형이 제시한 요소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이론은 현실을 투영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실과 다른 내용이나 부적합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다양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제시된 이론적 틀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즉, 연역적 모형에 대해 탐색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각 영역별 적합성 분석과 영역에서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니는 부분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때 이론개념의 구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도구로써(배귀희, 2011) 활용되고 있는 구조방정식의 모형적합도 및 고차확인적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으로 제시된 커뮤니티웰빙에 대해 제시하였다. 둘째, 제시된 이론모형을 측정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자료를 수집한 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적합성이 높은 수준의 영역과 수준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이론적 커뮤니티웰빙의 영역별 함의와 향후 연구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검토

최근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논의가 국가마다, 기관마다 다양하게 실무활용측면에서 정의되고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관점들은 각각의 실무적인 활용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보편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일관된 틀(framework)이 필요한데, 공통된 틀을 제시하려고 한 최근의 연구로서 Smith & Hoekstra(2011)의 논의와 이를 발전시킨 Kee et al.(2014)의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이론적 기틀로서 커뮤니티웰빙의 방향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커뮤니티웰빙의 이론프레임워크: 실무활용의 한계를 넘어서

오랫동안 국가나 사회를 평가하는데 GDP는 기준으로 논의되어왔다. 즉, 어떠한 사회의 발전상태 또는 정부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beyond GDP'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것이다(Smith & Hoekstra, 2011: 3)³⁾. GDP는 주로 경제적, 물질적 측면에 대한 획일적 측정지표였으며 이에 비경제적, 비물질적 측면에 대한 비획일적인(문화, 시대적 요소를 고려하는) 지표 설정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GDP는 인간의 웰빙이나 지속적 발전에 대한 좋은 지표로 고려되기에는 지나치게 물질적인 측면에 매몰되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비판과 논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오래된 논쟁이었을지라도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의 심각성 고조, 경제위기의 도래 등은 이러한 논의를 비등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 1970년대 지나면서 복지에 대한 논쟁이 국제사회에서 가속화된 이후로 웰빙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있어왔다. 국제사회들은 웰빙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통해 국가들의 '사회의 질(the quality of society)'을 평가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논의 뒤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평가기준들이 적절한가이다. 현실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시대적 맥락에서 강조되는 부분이나 지표에 따라 다른 요소나 지표가 변화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이른바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웰빙에 대한 시기적 중요성에 비해 학술적(academic) 기틀이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커뮤니티웰빙과 같은 개인을 넘어 집합체를 평가하기 위한 논의는 견고한 이론적 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GDP 개념을 넘어서거나 범람하고 있는 웰빙의 복잡한 개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워크의 제시는 실무 및 이론 영역 모두에서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영화 외(2013)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기영화 외, 2013: 2-3) 경제지표가 삶의 질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민 개인 차원의 행복이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나 논의는 활발하나 집합체 단위에서 평가하고 수렴할 수 있는 통합된 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결국 웰빙이 단순한

3) 본 연구는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이론전개상 GDP등 경제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 판단되어 논의가 전개하고 있다. 하나 QOL에 대해 미국 EPA가 이미 30개의 요소를 제시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주도한 것이 1972년의 일이었다. 이는 1970년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나 관점이 국제사회 대부분이 추진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많은 국가들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측면을 강하게 강조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진행하고자 하였다.

GDP 논의를 벗어나고 나아가 실무에서의 활용에만 국한되어 집합체의 웰빙으로 통합·수렴됨으로서 이론적 틀을 제시되어야 한다. 만일 다양한 논의를 수렴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구성되지 못한다면 현재까지 이루어지던 분과된 논의와 적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사회구성원이 바라는 이상적 웰빙에 다가서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2. 커뮤니티웰빙의 영역: Resources & Capit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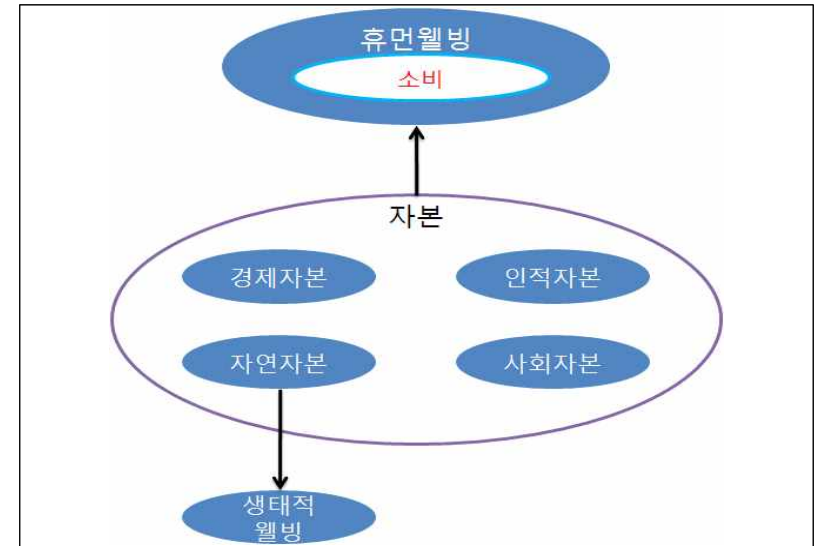
집합체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웰빙을 통합 및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구성틀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구성은 현실점에 국한되지 않고 다가올 미래의 상황 역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재와 미래세대의 웰빙은 사회가 내포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과 관련될 수 있다(Smith & Hoekstra, 2011: 21). 이들 자원은 또는 자산(assets)은 소위 자본(capital)에 기초해서 평가된다. 자본은 경제적 자본 뿐만 아니라 비시장적 자본인 자연자본(natur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포함한다.

사실 자본에 관한 많은 문헌들은 웰빙 나아가 복지와 관련된다. 자본에 대한 Hicks(1939)의 문헌을 참고하자면 국가의 (물질적) 복지는 자본의 양 존속되는 기간동안 부여되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 초기 자본이론가들의 논의는 복지나 웰빙의 측면이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를 넘어서는 지속성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Solow(1956)은 자본의 중요성을 GDP 성장과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자본의 축적 및 성장은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 자본에 대한 가장 오래된 관점은 이와 같이 경제성장 또는 생산자원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1960년대 이후 GDP 성장과 관련될 때 단순한 물질적 측면이외의 부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간주하고 시작하였고, 이때 생산기능에서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고려하였다고 Smith & Hoekstra(2011: 21)는 지적한다. 즉, 생산기능에서 노동력의 질이 실제 GDP와 관련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시기 이후 자연자본(subsoil assets, but also global stocks such as biodiversity and a healthy atmosphere)이 함께 고려되었다. 이와 같은 측면은 inter-personal 관계의 질과 네트워크가 복지 및 웰빙에 고려해야할 요소라는 것이다. 아울러, 'GDP를 넘어서'는 직접적으로 웰빙과 관련된다. 이는 단순히 현재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복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자본과 관련된 학술적 범주에서 자본이 단순한 생산기능을 넘어 광범위하게 정의될 때 인간의 집합체적 또는 커뮤니티단위에서의 웰빙은 광의로 정의된 자본(capital)과 상호 관련될 수 있다.

Smith & Hoekstra(2011)는 웰빙과 관련된 중요요소로 자본을 포함시켰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소비(consumption)를 이론적 틀로 구성하였다(<그림 1>참조). 물론 그들의 설명처럼 웰빙은 단순한 소비보다 큰 범주이다. Smith & Hoekstra(2011: 21-23)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비는 오직 생활필수품들을 소유하려는 생각에 초점을 둔다. 웰빙은 물질이나 필요한 재료를 소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웰빙에 대해 고려할 때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Amartya Sen(1993)가 언급한 적 있는 '기능주의와 개인역량(functionings and capabilities)'과 관련된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유와 가능성이 웰빙을 설명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된다. 즉, 개인소비 및 소득과 같은 부분이 웰빙에 요소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 웰빙은 생활에 필요한 자원들(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를 넘어서 더 많은 요소들에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심리적(psychological), 생물물리학적(biophysical), 사회적 현상들이 웰빙의 느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사회는 많은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포함한다. 이 자원들은 경제적 자본(철단장비들과 빌딩들), 인적 자본(노동력, 교육, 건강 등), 자연 자본(자연 자원들, 다양한 생물들, 기후 등), 사회 자본(사회 관계망, 신뢰, 제도적 자본 등)들로 언급될 수 있다. 이들 자원들은 인간의 웰빙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자연 자본은 자원의 유형에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그것이 'critical capital stock'이기 때문이다. 그것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인간 삶의 질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데, 웰빙이 매우 인간중심적이기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자연훼손과 같은) 관심을 덜 가지며, 자연 자본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환경적 웰빙(ecological wellbeing)'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1>참조).

<그림 1> Smith & Hoekstra의 웰빙⁴⁾



자료: Smith & Hoekstra(2011: 22)의 <그림 1> 인용

이와 같은 중요한 논지를 제시한 Smith & Hoekstra(2011)은 웰빙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Maslow가 제시한 것처럼 생물학적 욕구와 함께 안전에 대한 욕구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여전히 궁핍증이 남는다. 즉, 자연환경은 물리적 요소인 반면에 인간이 가공한 인프라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보다 안전한 곳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인프라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의 경우에 구성된 간의 유대관계 및 신뢰와 같은 형태도 존재할 수 있으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자들(Dimaggio & Powell, 1991; Scott, 1995)의 주장처럼 문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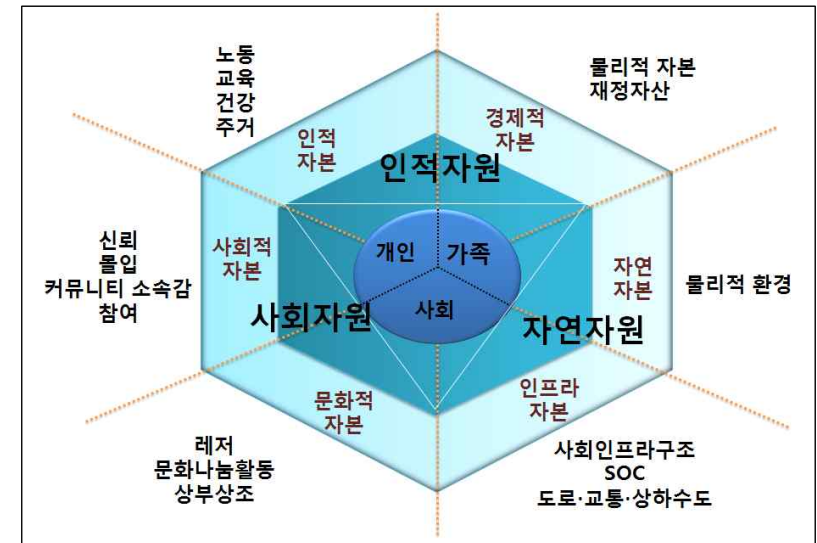
4) Smith & Hoekstra(2011)는 '휴먼웰빙(human 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집합체로서 지역을 상징하고 지역사회 및 사회단위에서의 웰빙을 고려하고 있다. 즉, '커뮤니티웰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커뮤니티웰빙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맥락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구성원들에게 구현되어 사회가치나 부가가치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의 요소를 강조하여 '문화자본'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의 주장이 이와 같다. 특히, 커뮤니티와 같은 작은 구성체 단위에서는 지역 및 문화적 색채가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Smith & Hoekstra(2011)의 논의가 국가단위, 나아가 글로벌 단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웰빙은 세분화되고 가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3. Resources & Capitals를 포함하는 다차원 CWB 모형

Smith & Hoekstra의 휴먼웰빙이 자본이론에 입각하여 좋은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본과 웰빙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집합체인 커뮤니티는 개인, 개인의 집합체인 가족, 나아가 그들이 어우러진 사회로 구성된다. 또한, 커뮤니티에 생산수단으로서⁵⁾ 자본은 구체화된 결과라고 볼 때 잠재적인 요소로 인간, 사회, 환경으로 구성되는 자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인간자원은 사람과 관련된 자본으로 구현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사회 및 환경 역시 사회나 환경과 관련된 자본으로 구현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간주해볼 수 있다. 즉, 커뮤니티웰빙은 사회요소(개인, 가족, 사회)라는 기초에서 자원, 자본으로 이어지는 다차원적 개념들의 결합이다. <그림 2>은 이와 같은 커뮤니티웰빙의 다차원적 속성을 제시한 Kee, et al.(2014) 모형이다.

<그림 2> CWB의 다차원 모형(Multi-dimensional model)⁶⁾



출처: Kee et al.(2014) 인용

상기의 관점에서 논의된 Kee, et al.(2014) 모형은 기본적으로 6개의 구성요소에 기초한다. 우선, 인적자본으로서 인적자본에는 노동, 교육, 건강, 주거의 지표가 포함된다. 둘째, 경제적 자본에는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과 재정자산(Financial Asset)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자연자본에는 물리적 환경이 포함된다. 넷째, 인프라자본에는 사회인프라구조, SOC, 도로·교통·상하수도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문화적 자본에는 관광레저, 문화나눔활동(Sharing), 상부상조(Mutual help)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에는 신뢰, 몰입, 커뮤니티 소속감(community bonding), 참여 등이 포함된다⁷⁾.

4.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점과 한계

커뮤니티웰빙 개념의 복잡성으로 인해 학자들 간, 연구영역 간 상이한 해석과 관점이 제시되어왔다. 이처럼 커뮤니티웰빙의 개념적 복잡성으로 인해 단일한 또는 보편적 이론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소수의 연구자들은(Murphy & Kuhn, 2006; 이승중 외, 2013) 커뮤니티웰빙의 개념적 복잡성을 해소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단계이다. 즉, 커뮤니티웰빙의 다양한 논의들은 행복·건강·번영한 상태에 초점을 두고 이와 같은 상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외재적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강조하며(Whorton & Moore, 1984; Christakopoulou, Dawson, & Gari, 2001; Sirgy & Comwell, 2001; Sirgy et al., 2000), 이와 함께 사회, 경제, 환경, 정치와 같은 영역을 포괄하는(Cuthill, 2002)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7) 이와 같은 논리에 대해서는 Kee, et al.(2014) 및 Kee, et al.(2012)를 참조하길 바란다.

5) 여기서의 생산수단은 단순히 기계적 물리적 결과의 도구만이 아니라 비물리적 심리생태적 차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6) 여기서 다차원 CWB모형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개인차원, 가족차원, 사회차원을 인적자원, 사회적자원, 자연자원과 연결시켰으며, 이를 또 다시 6개 자본영역과 연결시켰으므로 3가지 범주 및 차원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괄적 정의 방식은 사회경제영역, 환경영역, 정치영역을 커뮤니티웰빙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각주 7> 참조). 이렇게 볼 때 사회경제영역은 경제적 성장을 통해 사회적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역의 경제적 해소는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빈곤층의 기본적 인권을 해소하고 사회의 경제적 계층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배분이 정당한 지역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 환경영역은 지역의 환경적 수준이 개선됨으로써 개인의 웰빙이 고양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만일 공공시설이나 주변환경이 적절히 관리되지 잘 관리되지 못한다면 지역구성원의 만족감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Hartnagel, 1979; Varady, 1986). 이러한 지역차원의 환경관리는 지역구성원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개인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 정치영역은 직접적으로 사회문제에 구성원이 관련하는 참여의 방식이 제고된다면 지역사회 내의 문제해결을 통해 주체성 확보와 소속감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개인 및 공동체의 심리적 웰빙을 고양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Christakopoulou et al(2001)은 정치적 커뮤니티는 주민들의 정보수준, 의사결정에의 참여정도를 통해 자신의 문제와 관련이해관계자들, 또는 공동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커뮤니티웰빙이 포함해야할 영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커뮤니티웰빙의 개념영역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 간 차이로 인해 개별적 측정지표들은 중첩된 영역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개념과 측정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자의적인 분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커뮤니티웰빙의 연구들은 개념의 복잡성으로 일관된 개념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상당부분 커뮤니티웰빙을 논의하는 초석으로서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론적으로 합의된 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Kee et al.(2014)의 이론적 틀을 다듬고 지속하는 일은 현재의 커뮤니티웰빙 연구의 복잡성과 분과성을 해소하고 한 단계 견고한 관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8) 기영화 외(2013: 298)가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커뮤니티웰빙 정의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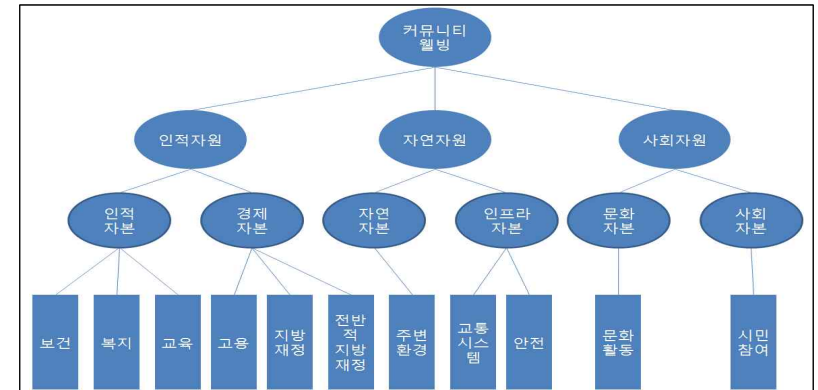
연구자	개념
Kusel(1991)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로서 공동체 자신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Ribova(2000)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요구들의 조합
Christakopoulou et al.(2001)	살기 좋은 지역의 요건인 살기 좋은 공간, 사회적 커뮤니티, 경제적 커뮤니티, 정치적 커뮤니티, 개인적 공간 제공, 지리적 부분의 한 부분으로서의 커뮤니티
Chanan (2002)	지역공동체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 지역이 얼마나 잘 관리 되는가. 지역에서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가. 그 지역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온하며 가치가 있는가.
Cuthill (2002)	시민과 공동체의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물리적, 재정적, 사회적, 인적 자본
Ramsey & Smith (2002)	사람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게 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Scottish Development (2003)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변형하는 것
Wiseman(2008)	개인의 정신적 기능 증진과 사회통합 역할
Kruger(2010)	안정감과 자부심을 제공하는 것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커뮤니티웰빙의 이론모형은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3가지 영역에서 6개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인적자원(Human Resource)으로 보건, 복지, 교육을 포함하는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고용, 지방재정을 포함하는 경제자본(Economic Capital)으로 구성된다. 둘째,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으로 주변환경을 나타내는 자연자본(Natural Capital)과 교통시스템, 안전을 포함하는 인프라자본(Infra Capital)으로 구성된다. 셋째, 사회자원(Social Resource)으로 문화활동으로 대표되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과 시민참여로 표현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모형



한편, 각 영역은 이론적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하위 지표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부지표에 대한 구성에 있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아직까지 이론적 틀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다루어졌던 지표들을 이론영역으로 매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연구를 통해서 영역 간 지표의 균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분석지표 및 자료

커뮤니티웰빙 지표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을 이용하여 고차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수추정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추정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E)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측정항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하위영역별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적자본에 포함되는 보건에는 지역건강상태, 의료서비스를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복

지에는 노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보육지원서비스, 전반적 복지서비스를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에는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서비스, 교육환경을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측정항목이 인적자본의 측정지표이다. 둘째, 경제자본에 포함되는 고용에는 직업훈련서비스, 실업자 지원정책, 개인일자리를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지방재정에는 재정규모, 예산운용, 납부세금을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전반적 지방경제에는 전반적 경제상황, 지역생활비를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측정항목이 경제자본의 측정지표이다. 셋째, 자연자본에 포함되는 주변환경에는 쓰레기처리서비스, 공기오염도, 공원·녹지공간이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측정항목이 자연자본의 측정지표가 된다. 넷째, 인프라자본에 포함되는 교통시스템은 대중교통, 인터넷서비스, 도로상태가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안전에는 자연재해 안전수준, 치안수준, 경찰인력 등이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측정항목들이 인프라자본의 측정지표가 된다. 다섯째, 문화자본에 포함되는 문화활동에는 지역문화예술활동수준,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수준이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측정항목이 문화자본의 측정지표가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에 포함되는 시민참여에는 지역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이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사회자본의 측정지표로 사용되었다.

<표 1> 커뮤니티웰빙 영역 및 측정항목⁹⁾

최상위영역	상위영역	하위영역	세부지표	측정항목	
커뮤니티 웰빙 (CWB)	인적자원 (Human Resource)	인적자본 (Human Capital)	보건	c0101	지역건강상태 평가
				c0102	의료서비스 평가
			복지	c0601	노인서비스 평가
				c0602	장애인서비스 평가
		c0603		보육지원서비스 평가	
		c0604		전반적 복지서비스 평가	
		교육	c0501	공공도서관 평가	
			c0502	평생교육서비스 평가	
			c0503	교육환경 평가	
			경제자본 (Economic Capital)	고용	c1001
				c1002	실업자 지원정책 평가
				c1003	개인 일자리 평가
	지방재정	c1101		재정 규모 평가	
		c1102	예산 운용 평가		
		c1103	납부세금 평가		
	자연자원 (Natural Resource)	자연자본 (Natural Capital)	주변환경	c0201	쓰레기처리 서비스 평가
				c0202	공기오염도 수준 평가
				c0203	공원·녹지 공간 평가
		인프라자본 (Infra-Structural Capital)	교통 시스템	c0301	대중교통 평가
				c0302	인터넷 서비스 평가
c0303				도로 상태 평가	
안전	c0801	자연재해 안전 수준 평가			
	c0802	치안수준 평가			
	c0803	경찰인력 평가			
사회자원	문화자본	문화활동	c0402	지역 문화예술활동 수준 평가	

	(Social Resource)	(Cultural Capital) 사회자본 (Social Capital)	시민참여	c0403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 평가
				c0901	지역사회활동 평가
				c0902	자원봉사활동 평가

출처: Kee et al.(2014) & Lee et al.(2014)의 인용

본 연구의 자료는 '2010 커뮤니티웰빙 SSK 사업단'에서 서울시 5개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3월초부터 2013년 4월말까지 이루어졌다. 총 설문응답수는 1002개였으며, <표 2>는 설문응답자의 통계적 특성을 나타낸다. 통계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형태, 취업여부, 결혼상태, 소득이 포함되었는데 이때 결측치는 성별이 20개, 연령이 17개, 학력 26개, 거주형태 30개, 취업여부 43개, 결혼상태 29개, 소득이 85개였다. 전체자료 값이 1002개임을 고려한다면 결측값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성별의 경우 남성이 393명으로 39.2%의 비율을, 여성이 589명으로 58.8%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4대 6의 비중으로 균형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령의 경우 20대가 203명으로 20.2%를, 30대가 230명으로 22.9%를, 40대가 212명으로 21.1%를, 50대가 168명으로 16.7%를, 60대가 110명으로 11%를, 70대 이상이 63명으로 6.3%를 나타내고 있었다. 20대에서 40대까지가 6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조사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가 310명으로 31.8%를, 대학교가 540명으로 55.3%를, 대학원 이상이 125명으로 12.8%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대학교 인원이 상당히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넷째, 거주형태의 경우 자가가 453명으로 45.2%, 전세가 313명으로 31.2%, 월세가 120명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자가 및 전세 인원이 전체의 대략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섯째, 취업여부의 경우 취업자가 6대 4정도로 분포되어 있었다. 여섯째, 결혼상태의 경우 혼인상태가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30대 이상의 경우 결혼자가 많았다고 볼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일곱째, 거주기간의 경우 5년미만이 274명으로 27.4%, 5년이상 10년미만이 207명으로 20.7%, 10년이상 20년미만이 221명으로 22.1%, 20년이상 266명으로 26.6%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경우 300만원이상에서 400만원미만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지만, 각 소득수준별로 분포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에 따라 균형있게 표집된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었다.

<표 2>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

인적요인	구성요소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93	39.2
	여성	589	58.8
연령	20대	203	20.2
	30대	230	22.9
	40대	212	21.1
	50대	168	16.7
	60대	110	11.0
	70대 이상	63	6.3
학력	고등학교 이하	310	31.8
	대학교	540	55.3

	대학원 이상	125	12.8
거주형태	자가	453	45.2
	전세	313	31.2
	월세	120	12.0
	공동주택	34	3.4
	기타	53	5.3
취업여부	비취업자	376	37.5
	취업자	583	58.2
결혼상태	미혼	314	31.3
	혼인	646	64.4
	이혼	14	1.4
거주기간	5년미만	274	27.4
	5년이상-10년미만	207	20.7
	10년이상-20년미만	221	22.1
	20년이상	266	26.6
소득	100만원미만	57	5.7
	100이상-200미만	119	11.9
	200이상-300미만	161	16.1
	300이상-400미만	189	18.9
	400이상-500미만	141	14.1
	500이상-600미만	103	10.3
	600이상	147	14.7

3. 연구방법: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방법으로는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고차요인분석(higher order factor analysis) 등의 통계분석을 모형적합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론개념 구성연구에 고차요인분석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웰빙 이론개념의 구성요소(6개차분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얼마만큼 커뮤니티웰빙을 설명해주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1차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측정분향을 설명하는 구성요인을 확인하는데 있다. 2차 확인적 요인분석 혹은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토대 하에서 척도개발에 많이 활용된다(배귀희, 2011: 217). 즉, 추상적인 하나의 개념은 많은 하위 요소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하위 요소도 많은 하위의 또 다른 요소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요소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변수 및 문항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웰빙(고차요인)→인적자원(2차요인)→인적자본(1차요인)→지역건강상태평가(측정변수)’의 체제로 구성되었다. 즉 목표가 되는 커뮤니티웰빙은 지역건강상태 등(다른 측정변수와 함께)으로 인적자본의 설명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인 인적자본 등(인적자본 & 경제자본)으로 인적자원의 설명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인 인적자원 등(인적자원, 사회자원, 자연자원)으로 커뮤니티웰빙의 설명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때 직접적 측정 및 관찰변수가 없는 2차 혹은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은 1차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잠재 변수들을 활용해 측정된다. 측정된 결과 값들은 모

형적합도를 통해 검증된다. 따라서, 모형적합도 결과는 측정개념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측정지표들에 대한 타당도 분석을 위해서는 단일차원의 각 구성개념의 내용타당성, 구성개념타당성, 기준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이홍재·차용진, 2008). 우선, 측정지표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대표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내용타당성이다. 즉, 내용타당성은 측정도구의 대표성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이론적 구성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도구들 간의 일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구성개념타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의 검증타당성과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한 방식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구성개념의 단일차원에 대한 구성개념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확인적 요인분석 절차는 공분산행렬이 적용되며, 이 결과로 각 구성개념의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개별 측정지표 구성의 최적 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통계량,

에 대한 p-값, 적합지수(GFI: goodness of fit index), 조정적합지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잔차평균자승이중근(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근사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비표준적합지수(NNFI: non-normed fit index),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or index)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준타당성은 하나의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에 대한 측정이 미래시점에 있어서의 다른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기준타당성은 3개 구성요인과의 연관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상관관계분석 결과가 유의한 경우 기준타당성을 만족한다고 (Pedhazur & Schmelkin, 1991) 볼 수 있을 것이다¹⁰⁾.

IV. 분석결과 논의

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가 각 요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활용하였다¹¹⁾. <표 3>과 같이 모든 영역의 개념신뢰도가 0.55에서 0.95까지 그리고 분산추출지수가 0.61에서 0.739로 나타났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¹²⁾

상위영역	하위영역	측정문항	표준화계수	오차항 분산 (1-표준화합다 ²)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	------	------	-------	-----------------------------------	-------	--------

인적 자원	인적자본	c0503	0.84	0.294	0.952	0.690
		c0502	0.831	0.309		
		c0501	0.75	0.438		
		c0604	0.877	0.231		
		c0603	0.876	0.233		
		c0602	0.876	0.233		
		c0601	0.87	0.243		
	c0102	0.796	0.366			
	c0101	0.744	0.446			
	경제자본	c1202	0.722	0.479	0.938	0.689
		c1201	0.844	0.288		
		c1103	0.788	0.379		
		c1102	0.857	0.266		
		c1101	0.875	0.234		
c1003		0.815	0.336			
c1002		0.816	0.334			
c1001	0.806	0.350				
사회 자원	문화자본	c0402	0.93	0.135	0.596	0.739
		c0403	0.932	0.131		
	사회자본	c0902	0.921	0.152	0.555	0.691
		c0901	0.943	0.111		
자연 자원	자연자본	c0201	0.817	0.333	0.597	0.613
		c0202	0.709	0.497		
		c0203	0.747	0.442		
	인프라자 본	c0803	0.85	0.278	0.911	0.632
		c0802	0.853	0.272		
		c0801	0.827	0.316		
		c0303	0.787	0.381		
		c0302	0.727	0.471		
		c0301	0.713	0.492		

문화자본, 사회자본, 자연자본은 각각 개념신뢰도가 0.7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0.6수준에는 근접하고 있으며, 분산추출지수는 0.6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신뢰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3가지 개념은 개념타당성은 다소 낮을지라도 수렴타당성은 높았다. 개념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에 측정문항이 추가될 필요는 있겠으나 사용된 지표는 개념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인적자본, 인프라자본, 경제적자본은 모두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가 충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각 구성개념 간 상관행렬과 분산추출지수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자연자본	인프라자본	인적자본
경제자본	0.689					
문화자본	0.545 (0.738)	0.657				
사회자본	0.719 (0.848)	0.561 (0.749)	0.617			
자연자본	0.667 (0.817)	0.658 (0.811)	0.612 (0.782)	0.547		

인프라자본	0.686 (0.828)	0.774 (0.88)	0.686 (0.828)	0.819 (0.905)	0.532	
인적자본	0.760 (0.872)	0.748 (0.865)	0.724 (0.851)	0.817 (0.904)	0.841 (0.917)	0.690

=분산추출지수; 한 셀에서 ()= 을 의미하며, 셀 내에서 () 위의 값은 을 의미

관별 타당성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를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요인을 통해 도출된 분산추출지수가 결정계수() 보다 클 때 두 요인 사이에는 관별타당성이 (김계수, 2007: 372-373) 확보된다. 비교결과 각 결정계수가 분산추출지수 보다 높았다. 이는 각 구성개념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6개 구성요인 간 상관성이 높다는 것은 기준타당성을 만족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Pedhazur & Schmelkin, 1991). 한편, <표 5>는 1차요인 6개에 대한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와 2차요인 3개에 대한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1차요인에 대한 확인적요인분석과 2차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두 모형적합도를 만족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수렴기준에 근접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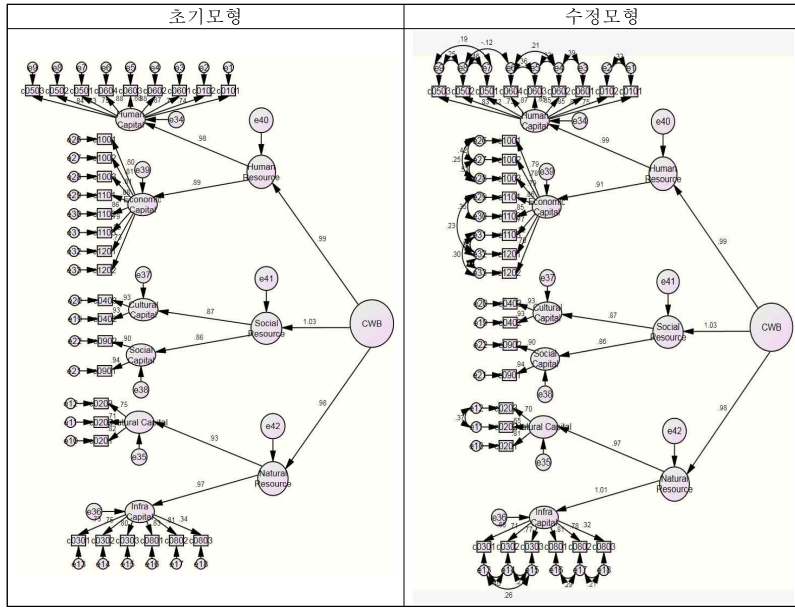
<표 5> 1차 & 2차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모형		DF	Sig.	CFI	GFI	AGFI	NFI	IFI	RMSEA	RMR
1차	3902.957	390	0	0.881	0.761	0.715	0.87	0.881	0.095	0.141
2차	4014.081	396	0	0.878	0.757	0.714	0.866	0.878	0.095	0.147

2.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고차요인분석

각 개념들의 적합성(구성개념의 타당성)에 기초한 전체모형 결과는 <그림 4>과 같다. 이 모형은 6가지 자본이 각기 3가지 자원으로 수렴하고 이것이 커뮤니티웰빙(CWB: Community Well-Being)의 구성요소로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된다. 공분산행렬을 활용하여 분석한 구성요인과 개념과의 모형적합도는 <표 6>와 같다. 모형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형검증한 결과는 기초모형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의 회귀계수는 타당성을 부여받기 어렵고, 개념과 측정변수 간의 적합성에 대한 통계결과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에 수정이 필요하다.

<그림 4> 기초모형과 수정모형



수정된 모형에서는 CFI(0.9이상), NFI(0.9이상), IFI(0.9이상), RMSEA(0.8미만)가 적합도를 만족시켰으며 GFI(0.9이상), AGFI(0.9이상), RMR(1.0미만) 역시 기준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기초모형의 수준에서 수정모형의 변화는 비교적 크게 이루어졌기에 분석모형이 적용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표 6> 커뮤니티웰빙 모형의 고차요인분석 모형적합도 결과

모형	D.F	Sig.	CFI	GFI	AGFI	NFI	IFI	RMSEA	RMR	
기초	4014.081	396	0.000	0.878	0.757	0.714	0.866	0.878	0.095	0.147
수정	2046.017	373	0.000	0.946	0.874	0.843	0.935	0.946	0.067	0.105

상기의 모형적합도에 기초하여 커뮤니티웰빙 모형의 개념과 측정지표 부합정도를 나타내는 결과가 <표 7>이다. 우선 인적자원, 사회자원, 자연자원 모두 커뮤니티웰빙 개념에 부여하는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인적자원이 0.992, 사회자원이 1.025, 자연자원이 0.98로 도출되었다. 이는 세 가지 영역은 상위 구성개념인 커뮤니티웰빙을 균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커뮤니티웰빙의 하위요소로서 인적자원, 사회자원, 자연자원은 커뮤니티웰빙 개념을 설명하는데 매우 적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체적으로 0.7이상의 표준화계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요인들 뿐만 아니라 세부측정지표들도 상위 개념에 잘 부합하는 것이며, 나아가 커뮤니티웰빙 개념의 구성요소로서 적합함을 의미한다.

<표 7> 커뮤니티웰빙 개념, 하위영역, 측정지표 간 경로 유의성 검증

개념	방향	측정지표	차수	표준화	비표준화	S.E.	C.R.	P
CWB	→	Human Resource	3차	0.992	1			
	→	Social Resource	3차	1.027	0.992	0.032	31.316	***
	→	Natural Resource	3차	0.989	0.93	0.033	28.509	***
인적자원	→	Human Capital	2차	0.992	1			
	→	Economic Capital	2차	0.915	0.727	0.031	23.128	***
사회자원	→	Cultural Capital	2차	0.896	1			
	→	Social Capital	2차	0.864	0.877	0.031	28.634	***
자연자원	→	Natural Capital	2차	0.965	1			
	→	Infra Capital	2차	0.996	1.045	0.103	10.149	***
인적자본	→	교육환경 평가	1차	0.83	1			
	→	평생교육서비스 평가	1차	0.823	0.957	0.026	36.819	***
	→	공공도서관	1차	0.733	0.898	0.03	29.638	***
	→	전반적 복지서비스	1차	0.868	0.988	0.028	34.88	***
	→	보육지원서비스 평가	1차	0.853	0.96	0.028	33.838	***
	→	장애인서비스 평가	1차	0.848	0.968	0.029	33.467	***
	→	노인서비스 평가	1차	0.851	0.963	0.028	33.8	***
	→	의료서비스 평가	1차	0.805	0.9	0.029	30.981	***
	→	지역건강상태 평가	1차	0.749	0.792	0.028	27.791	***
자연자본	→	쓰레기처리서비스 평가	1차	0.81	1			
	→	공기오염도 수준 평가	1차	0.657	0.876	0.04	22.008	***
	→	공원·녹지 공간 평가	1차	0.706	0.998	0.041	24.177	***
인프라자본	→	경찰인력 평가	1차	0.807	1			
	→	치안수준 평가	1차	0.798	1.009	0.094	10.722	***
	→	자연재해안전 평가	1차	0.819	0.965	0.095	10.185	***
	→	도로상태 평가	1차	0.774	0.951	0.094	10.106	***
	→	인터넷 서비스 평가	1차	0.708	0.846	0.085	9.939	***
문화자본	→	대중교통 평가	1차	0.686	0.912	0.092	9.872	***
	→	지역문화예술활동수준	1차	0.928	1			
사회자본	→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1차	0.934	0.979	0.02	49.49	***
	→	자원봉사활동 평가	1차	0.896	1			
경제자본	→	지역사회활동 평가	1차	0.941	1.043	0.024	44.26	***
	→	지역 생활비 평가	1차	0.702	1			
	→	전반적 경제상황 평가	1차	0.817	1.153	0.039	29.645	***
	→	납부세금 평가	1차	0.766	1.082	0.039	27.422	***
	→	예산 운용 평가	1차	0.847	1.159	0.046	25.141	***
	→	재정 규모 평가	1차	0.86	1.234	0.048	25.508	***
	→	개인 일자리 평가	1차	0.791	1.111	0.047	23.557	***
	→	실업자 지원정책 평가	1차	0.783	1.059	0.045	23.318	***
	→	직업훈련서비스 평가	1차	0.793	1.061	0.045	23.574	***

3. 하위영역 및 지표의 부합도 순위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하위영역의 부합도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참조). 상위영역에 부여된 표준화수치와 하위영역에 부여된 표준화수치를 곱한 값이 부합도 수치이며, 이것으로 6개 자본영역의 순위를 구분할 수 있었다¹³⁾.

<표 8> 하위영역의 커뮤니티웰빙(CWB) 부합도 순위

상위영역	하위영역	부합도	순위
인적자원(0.992)	인적자본(0.992)	0.984	2
	경제자본(0.915)	0.908	4
사회자원(1.027)	문화자본(0.866)	0.889	5
	사회자본(0.864)	0.887	6
자연자원(0.989)	자연자본(0.965)	0.954	3
	인프라자본(0.996)	0.985	1

*()는 적합도 수치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받은 자본은 인프라자본으로서 0.985의 부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어 인적자본이 0.984로 나타났는데, 이때 상호간 수치는 0.001로서 매우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커뮤니티웰빙에 부여되는 6개 자본영역에서 인프라자본과 인적자본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요소임을 의미한다. 자연자본(환경)도 0.954로 나머지 3개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합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반해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은 0.9미만의 부합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상위영역에서는 사회자원이 가장 높은 부합도를 보였지만, 하위영역들의 순위는 낮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위영역차원에서는 사회자원(1.027)이 가장 높은 부합도를 보였으나, 이를 설명해주는 하위영역의 요소들이 충분히 측정되지 않아 하위영역에서는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것이 6개 영역에서 낮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측정지표들의 커뮤니티웰빙(CWB) 부합도 순위

하위영역	지표	부합도	순위
인적자본(0.984)	교육환경 평가 (0.83)	0.817	8
	평생교육서비스 평가 (0.823)	0.810	9
	공공도서관 (0.733)	0.721	21
	전반적 복지서비스 (0.868)	0.854	1
	보육지원서비스 평가 (0.853)	0.839	2
	장애인서비스 평가 (0.848)	0.834	5
	노인서비스 평가 (0.851)	0.837	3
	의료서비스 평가 (0.805)	0.792	13
	지역건강상태 평가 (0.749)	0.737	20
자연자본(0.954)	쓰레기처리서비스 평가 (0.81)	0.773	16
	공기오염도 수준 평가 (0.657)	0.627	30
	공원·녹지공간평가 (0.706)	0.674	28
인프라자본(0.985)	경찰인력 평가 (0.807)	0.795	11
	치안수준 평가 (0.798)	0.786	14
	자연재해안전 평가 (0.819)	0.807	10
	도로상태 평가 (0.774)	0.762	18
	인터넷 서비스 평가 (0.708)	0.697	25

문화자본(0.889)	대중교통 평가 (0.686)	0.676	27
	지역문화예술활동수준 (0.928)	0.825	7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0.934)	0.830	6
사회자본(0.887)	자원봉사활동 평가 (0.896)	0.795	11
	지역사회활동 평가 (0.941)	0.835	4
경제자본(0.908)	지역 생활비 평가 (0.702)	0.637	29
	전반적 경제상황 평가 (0.817)	0.742	19
	납부세금 평가 (0.766)	0.696	26
	예산 운용 평가 (0.847)	0.769	17
	재정 규모 평가 (0.86)	0.781	15
	개인 일자리 평가 (0.791)	0.718	23
	실업자 지원정책 평가 (0.783)	0.711	24
	직업훈련서비스 평가 (0.793)	0.720	22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측정지표의 부합도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9>참조). 상위영역에 부여된 표준화수치와 하위영역에 부여된 표준화수치를 곱한 값에 측정지표에 부여된 이 표준화수치를 곱한 것이 부합도 수치이다. 이를 통해 전체 31개지표의 순위를 구분할 수 있었다. 1위에서 10위에 포함된 지표 중에서는 인적자본에서 9개중 6개(약 63%), 문화자본 2개중 2개, 사회자본 2개중 1개(50%)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웰빙의 측정지표로는 인적자본에 포함된 지표들이 가장 높은 부합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측정지표 역시 6가지 영역과 비교할 때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경제자본, 인프라자본, 자연자본에 포함된 측정지표들은 그 순위가 낮아 커뮤니티웰빙의 부합도는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몇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인프라자본은 6가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합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각 측정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합도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적합도가 더 높은 측정항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자연재해안전을 제외하고는 0.8이상을 나타내는 측정지표가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인터넷서비스와 대중교통은 0.7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자본의 경우에도 6가지 영역에서는 4위의 부합도를 나타내었음에도 측정지표들은 낮은 수치를 보여 해당지표들이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자본의 지표들은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용되어온 변수들이며, 향후에도 측정항목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경제적 조건이 커뮤니티웰빙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반대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은 측정항목들의 적은 수와 상관없이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복지 및 교육, 나아가 삶의 질(문화 및 지역사회 활동)이 더 중요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Kee et al.(2014)가 자원(resources), 자본(capital)을 중심으로 제시한 커뮤니티웰빙의 이론모형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고차요인분석을 통해 상위영역에서의 적합도 순위, 하위영역의 적합도 순위, 나아가 측정지표들의 적합도 순위를 각각 비교하고 함의를 일고자 하였

다. 이러한 시도는 이론적으로 제시된 모형이 현실상황과는 다른 부분이 이 있을 수 있기에 다양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서 이론적 틀을 다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및 가치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Kee et al.(2014)이 이론적으로 제시한 상위(자본), 최상위(자원) 간의 모형은 타당성이 높은 모형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1차요인 6개에 대한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와 2차요인 3개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수행하였는데, 둘 모두 CFI(0.881 & 0.878), NFI(0.87 & 0.866), IFI(0.881 & 0.878), RMSEA(0.095 & 0.095) 등으로모형적합도를 만족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수렴기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모형의 상위 3개에 대한 타당성도 하위 6개에 대한 타당성도 확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상위와 하위를 연계한 모형적합도 역시 CFI(0.878), NFI(0.866), IFI(0.878), RMSEA(0.095)로 확인되었다. 결국 커뮤니티웰빙 이론개념 구성의 분석틀로서 Kee et al.(2014) 모형은 적합성과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받아들여진다. 만일, 향후 연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면 제시된 이론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다.

둘째, 커뮤니티웰빙 이론 개념 중 상위영역에서는 사회자원이 가장 높은 부합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장(場)이다. 따라서, 커뮤니티웰빙을 위해서는 상호간 신뢰와 네트워크, 문화적 속성(지역적 색채) 등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한 가지가 개인 단위로 되어가는 상황하에 나타나는 인간소외라고 볼 때 결국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쾌적한 공기나 아름다운 도시, 또는 소득수준보다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이다.

셋째, 상위 3가지 영역에서는 각각 인적자본(인적자원), 문화자본(사회자원), 인프라자본(자연자원)이 높은 부합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경제자본에 비해서 인적자본이 높았는데, 이는 과거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어오던 관점이 상당부분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문화자본의 경우 사회자본보다 높은 부합도이나 큰차이 없이 대동소이 하였고(0.002), 이는 사회자본으로 간주한 두 영역은 모두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사회자본이 2000년대 이후 이론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중요하는 논의가 지속되어왔다는 점에서 문화자본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았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프라자본이 자연환경 보다 자연자본에 부합도가 높았다는 사실 역시 자연환경이 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관점과는 다른 결과이다.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이고, 치안이나 인프라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순수한 자연상태 즉, 녹지나 대기와 같은 자연환경이 보다 중시될 것이라는 관점과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사회 나아가 미래사회에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첨단인프라환경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이 서울시 시민에 대한 내용이고, 2013년 조사에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자본에 해당되는 지표들은 상당히 오랜기간 사용되어온 변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측정지표들의 부합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의 인식속에서 경제적 요소가 과거 성장중심의 지역개발과 같이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asterlin(1974)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 특히, 서울시와 같이 경제적 수준이 높아진 곳은 더 이상 소득수준의 증가가 웰빙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경제적 지표가 커뮤니티웰빙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임에는 분명할지라도 지금보다 오히려 미래시점에는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경제자본의 지표들이 부합도 수준이 낮았던 것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일지도 모른다.

이상의 연구결과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표집을 하고 분석을 시도

하였던 부분이다. 커뮤니티웰빙은 기본적으로 그 단위가 소규모에 있을지도 모른다. 즉, 지역적 특색과 물리적 환경 등은 지역마다 조금씩 또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지역 각각이 상이한 커뮤니티웰빙의 '구성품'을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본 연구가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만큼 일반화 측면에서 연구가 시도되었고, 커뮤니티 단위를 넘어서는 논의일지라도 탐색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를 분석의 대상 또는 향후 지역구성의 '핵심(core)' 단위로 바라본다면 작은 단위에서의 연구가 필수적인 것이다. 둘째, 표본의 대표성 확보부분에 대한 것이다. 많은 설문조사의 경우 인구학적 특성에 기인하여 할당표본추출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지역 등)을 통제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표본조사는 무작위할당방식이며, 특히 본 설문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5개 지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 각 지역구당 설문응답수가 많지 않아 무작위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가 내포한 한계점이라 판단된다. 셋째, 각 영역 간 지표 수준이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가령, 인적자본의 측정지표는 9개인데 반해, 문화자본의 측정지표는 2개에 불과하다. 이는 영역 간 불균형 뿐만 아니라 측정지 신뢰성의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웰빙의 이론화 작업 중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이끌어 낸 하나의 결과물이며, 향후 더욱 다듬어질 커뮤니티웰빙 이론틀을 위한 시론이라고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 연구의 가치는 있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더 중요한 점은 향후 현 시점의 문제들을 다듬고 구분하여 커뮤니티 단위에서 시민들이 더욱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내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시도는 향후 논의가 깊어질 커뮤니티웰빙과 그 지표라는 '화두'를 구체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커뮤니티웰빙 연구를 위한 국제지표 분석: 한국적 함의의 도출. 지역발전연구, 22(1): 1-35.
- 김계수. (2007). Amos 16.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나래.
- 박도영. (2006). 학습자특성에 대한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 교육평가연구, 19(1): 285-304.
- 배귀희. (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1999-227.
- 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2).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33-56.
- 이배영·전진석. (2009). 지식관리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 75-98.
- 이승중·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커뮤니티웰빙 지표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평가비교연구: AHP 기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7(2): 313-337.
- 이흥재·차용진. (2008).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 평가모형에 대한 고찰: 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4): 69-92.
- Sen, Amartya K. (1993). Capability and Well-being in Martha C. Nussbaum and Amartya K. Sen (eds),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Press, pp. 30-53.
- Campbell, A. (1974). Quality of life is a Psychological Phenomenon. in B. Strumpel (ed). Subjective Elements of Well-Being, 9-19. OECD.
- Chanan, G. (2002). Measures of Community: A Study for the Active Community Unit and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Unit of the Home Office. London: Development and Statistics Unit of the Home Office.
- Cuthill, M. (2002). Coolangatta: A portrait of Community Well-being. Urban Policy and Research, 20(2): 187-203.

Christakopoulou, S. Dawson, J., & Gari, A. (2001). The Community Well-being Questionnaire: Theoretical Context and Initial Assessment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6: 321-351.

Dimaggio, Paul J. & Powell, Walter W. (1991).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Chicago, IL).

Kee, Youngwha., Yunji Kim, and Rhonda Phillips. (2014). *Community Wellbeing: Learning in Communities*. Springer Briefs Series. (2014 forthcoming)

Kee, Youngwha and Namsook Kim. (2012). Development of New Indicators to Measure Community Well-being. *Discovering new frontiers in Quality-of-Life research*. 2012-XI-ISQOLS CONFERENCE.

Kusel, J. (1991). *Well-being in Forest-dependant Communities*. CA: Forest and Rangeland Resources Assessment Program and California 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 Berkely.

Kruger, P. Stefan. (2010). Wellbeing-The Five Essential Elements.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6(3): 325-328.

Lee, Seung Jong., Yunji Kim, and Rhonda Phillips. (2014). *Community Well-be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Conceptions and Applications*. Springer Briefs Series. (2014 forthcoming)

Pedhazur, E. J., & Schmelkin, L. P. (1991). *Measurement, design, and analysis: An integrated approach*. Hillsdale, NJ: Erlbaum.

Ramsey, D. & Smit, B. (2002). Rural Community Well-being: Models and Application to Changes in the Tobaccobelt in Ontario. Canada. *Geoforum*, 33: 367-384.

Scott, Richard W. (1995).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London: Sage.

Scottish Development Center. (2007). *Developing Social Prescribing and Community Referrals for Mental Health in Scotland*. Healthier Scotland Scottish Government.

Smith, Jan Pieter & Hoekstra, Rutger. (2011).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etal Progress: Overview and Conceptual Approach*. Statistics Netherlands. pp: 1-106.

White, S. C. (2008). *But What is Wellbeing? A framework for Analysis in Social and Development Policy and Practice*. Centre for Development Studies.

Wiseman, J. (2008). *Community Wellbeing in and Unwell World: Trend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에 게재하고 있다.(inseok800414@naver.com)

이 승 중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1989),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관심 분야는 도시 및 지방행정, 시민참여, 정부실패 등이며, 「시민참여론」(2011)등의 저서와 “An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Components in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Social Indicators Research, 2014),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ommunity Wellbeing Index in Korean Metropolitan Cities”(Social Indicators Research, 2014),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한국행정연구, 2014)”, “서울시 패널자료를 활용한 커뮤니티웰빙 개념구조와 측정지표의 적합성 분석(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4)” 등의 논문이 있다.(slee@snu.ac.kr)

[저자소개]

기영화 Ph. D,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논문: A Study of Adult Education Needs of Korean Americans: Barriers to Participation, 1993)를 취득하고 숭실대학교평생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커뮤니티웰빙, 공무원HRD, 노인인력개발이며, 관련논문으로는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한국행정연구, 2014), “An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Components in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Social Indicators Research, 2014), “Sing, Dance, and Be Merry: The Key to Successful Urban Development?”(Asian Social Science, 2014), “Promoting Community Wellbeing: The Case for Lifelong Learning for Older Adults”(Adult Education Quarterly, 2014) 등이 있다.(key@ssu.ac.kr)

서인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2013년 “국회입법과정에서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숭실대학교 SSK 커뮤니티웰빙 연구단에 재직 중이다. 2011년 한국행정학회에서 주관하는 Travel Grant 지원사업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 및 복지 분야의 정책분석, 정책평가, 연구방법론, 커뮤니티웰빙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정책유형과 정책대상집단에 따른 정책결정 소요시간 연구(한국행정학보, 2013)”, “정책명칭, 상징, 그리고 수용(한국행정학보, 2014)”,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한국행정연구, 2014)”, “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로서 지방행정서비스요인의 적합성 분석(지방행정연구, 2014)”, “서울시 패널자료를 활용한 커뮤니티웰빙 개념구조와 측정지표의 적합성 분석(2014)”, “The Government-Driven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IRAS, 2014)” 등 이외에 다수의 연구물을 학술지널